스포츠동아
2019년 11월 29·30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우승-ACL-잔류…K리그 '운명의 주말'

14년만에 우승 vs 역전 드라마

12월1일 울산-전북, 현대가 역대급 전쟁
승점 1점차 4위 대구, 서울과 ACL행 단판
'암 투병' 유상철의 인천, 잔류 희망 기대

표현 그대로 K리그의 '슈퍼 위크(Super Week)'다. 숨 가쁘게 이어진 '하나원큐 K리그 2019'의 대미를 장식할 성대한 파이널 무대가 주말 일제히 펼쳐진다.

가장 큰 관심은 다음달 1일 확정될 K리그1 우승경쟁이다. 시즌이 개막한 3월부터 치열하게 싸운 울산 현대(승점 79)와 전북 현대(승점 76)의 운명이 가려진다.

유리한 쪽은 포항 스틸러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일 1위 울산이다. 비기기만 해도 2005년 이후 14년 만의 정상에 선다. 2위 전북은 기적이 필요하다. 홈에서 강원FC를 무조건 꺾은 뒤 울산이 포항에 지길 바라야 한다. 울산은 2013시즌 리그 최종전에서 포항에게 패해 우승을 내준 악몽을 극복한다는 의지이고, 전북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날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도 확정된다. 3위 FC서울(승점 54)과 4위 대구FC(승점 53)가 올 시즌 가장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 DGB대구은행파크에서 격돌한다. 역시 '비겨도 될' 서울이 유리하나 대구의 최근 페이스가 매섭다. 특히 대구는 오심 논란 등 서울에 구원이 있어 설욕과 함께 아시아 무대로 전진한다는 각오다.

앞선 30일에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대진이 결정된다. K리그1은 10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3)와 11위 경남FC(승점 32)의 창원 혈투가 관심이다. 자신의 투병 사실을 공개한 유상철 감독의 인천이 다시금 '생존왕'의 위용을 떨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인천은 승강제 도입 후 매 시즌 하위권 경쟁을 펼쳤으나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다.

여기서 정해질 11위는 같은 날 부산구덕에서 열릴 부산 아이파크와 FC안양의 K리그2 PO 승자와 다음달 5일과 8일, 홈 & 어웨이 형식의 승강PO에 나서 마지막 생존의 찬스를 잡게 된다. 부산-안양전의 경우, 대회 규정상 무승부 시 홈 팀(부산)이 승강PO에 오른다.

▶ 프로축구 관련기사 4면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침묵의 스토브리그…역대 두번째 '이적 없는 FA시장' 되나

화려한 이적?…아, 옛날이여!







2020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열린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기온은 냉랭하기만 하다. 특별한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적 선수 없이 대부분 FA들이 원 소속구단과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0 FA 시장에 나온 전준우, 김선빈, 안치홍, 오지환(왼쪽부터 시계방향). 스포츠동아DB



FA 시장 한달 다 돼가도 잔류 계약뿐
지난해도 '양의지 NC행' 1건 관심 시들
전준우 마저 '에이징 커브' 우려 입질 뚝
내야 보강 급한 SK, 유일 바이어 기대

침묵의 프리에이전트(FA) 시장. 29일은 공식적으로 2020년 FA 시장이 열린지 25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계약은 단 3건이다. 이지영(키움 히어로즈), 유한준(KT 위즈), 정우람(한화 이글스)이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유니폼은 바꿔지 않았다.

상당 수 팀들이 FA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했다. 아직 16명의 미계약 선수가 남아있지만 단 한 명의 이적도 없는 '침묵의 시장'이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몇 안 되는 변수는 전준우(롯데 자이언츠)를 바라보는 각 팀의 가치평가, 그리고 내야 보강이 필요한 SK 와이번스가 과연 '바이어'가 될지 여부다.

1999년 말 도입돼 2000년 FA 시장이 처음 열린 이후 단 한 명의 선수도 이적이 없었던 해는 2008년이 유일하다. 그 해 6명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호준(SK), 조인성(LG 트윈스) 등 대형 선수들이 모두 잔류하며 팀 이동이 없었다. 2011년에도 4명의 FA 중 2명은 잔류, 2명은 미계약으로 이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해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FA 신분으로 돌아온 이범호가 한화 이글스가 아닌 KIA 타이거즈를 선택하며 스토브리그가 요동쳤었다.

한 해 전인 2010년에도 국내 팀 간의 이적은 없었지만 이병규가 일본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돌아왔고 김태균, 이범호가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FA 선수들이 리그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친 시즌이었다.

FA 시장이 대 호황기였던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7명과 8명이 팀을 옮겼다. 확실한 바이어였던 한화의 영향이 컸다. 마지막 호황으로 꼽힌 2018년은 민병헌(두산 베어스→롯데)과 강민호(롯데→삼성 라이온즈)의 이적이 있었다. 거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한 2019년에는 15명의 FA가 있었지만 단 한 명 양의지(두산→NC 다이노스)만 이 팀을 옮겼다.

올해 시장에 남은 16명 중 이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즉 20인 보호선수 외 보상선수 유출을 감내할 만한 카드는 3,4명 안팎으로 분류된다. 그 중 한 명인 전준우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식어가는 분위기다. 한 구단 관계자는 28일 "새 공인구로 22개의 홈런을 쳤지만 모두 에이징 커브를 우려한다. 내년 우리 나이로 서른다섯"이라고 말했다.

불과 몇 해 전에 시장에 나왔으면 80억~90억 원 계약도 가능했을 안치홍(KIA)은 이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카드다. 만29세, 올해 부진했지만 리그 정상급 장타력을 가진 2루수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단, 수비 범위가 좁아졌다는 일부 평가가 따른다. 관건은 내야 보강이 필요한 SK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있다.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도전으로 전력 보강이 절실한 SK는 수년 째 내야, 특히 2루가 약점이다. 시장에서는 "SK가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으면 결국 바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면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상사에 일갈하는 펭수 짱!" "용감무쌍 엘사·안나♥" …펭수·겨울왕국2 이유있는 돌풍 ▶ 10·11면

